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s of Cycle Tourists and the Quality of Life

Won-Jae Seo¹, Joo-Young Jang², Yong-Eun Kim³, Seung-Jin Han⁴

1.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Tel: +82-31-740-7131, E-mail: wonjaeseo@eulji.ac.kr

2. Co-Auth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3. Co-Author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4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E-mail: happiness@eulji.ac.kr

Received: May 23, 2018. Revised: June 01, 2018. Accepted: June 17, 2018.

Abstract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segments of the tourism industry, sport tourism refers to travel to play sports, watch sports, or to visit a sport attraction including both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activities. In this respect, cycling can be considered as not only a form of physical exercise but also a form of tourism in which cycling is a usual tourism-related activity, heading to a particular dest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emographical differences of cycle tourist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ir lif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reliability, and one - way ANOVA using SPSS 22.0. First, we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quality of physical life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mental life showed that income level affects their quality of mental life.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showed that marital status affects the quality of social life. Four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life.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Cycle, Demographics, Sport, Tourism, Quality of lif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상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참여형 여가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가활용 방법으로 '휴식활동'(75.3%), '사회 및 기타활동'(54.6), '취미오락활동'(53.4%), '스포츠 활동'(31.6%)순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문화예술 관람활동'(7.1%), '관광활동'(4.8%), '스포츠관람활동'(2.0%), '문화예술참여활동'(1.5%)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처럼 단순한 휴식과 기타

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스포츠 활동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로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박동균, 이은석, 2007; 차재혁, 장경로, 서원재, 2018). 이처럼 웰빙과 힐링으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인식의 변화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고 있다(장원용, 이광용, 원도연, 2015).

이러한 참여형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체험형 참여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수준을 넘어 보다 지적이고 창조적인 취미생활이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스포츠 참여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릴과 인내심, 도전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자연과 연계된 아웃도어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오태연, 권기성, 박경이, 서원재, 2014; 차재혁, 장경로, 서원재, 2018).

관광과 연계된 아웃도어 활동 중 자전거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활동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교통연구원(2016)에 따르면 자전거 1,400만 시대, 국민 네 명 중 한 사람은 자전거를 갖고 있다. 지난해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객만 1,481만명, 2007년 수준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4)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걷기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산 22.8%, 축구 8.7%, 사이클(자전거) 7.1%, 배드민턴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같이, 자전거 인구가 급증한 이유로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고, 또 '자여족(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한 것도 한 몫 하였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 값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전거의 한 종류인 로드바이크는 장거리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자건거로써 판매량은 한 자릿수에서 25%로 상승하였으나, 산이나 거친 비포장길을 달리는 산악자전거의 판매량은 2008년 70%에서 2015년 2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산악 및 단거리 라이딩이 아닌 장거리 라이딩을 선호하는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거리 라이딩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동호회에 가입해 여가활동을 하는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박경열(2013)에 따르면 동호회 가입 이유 중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6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 참여가 사교성, 긍정적 인생관리 등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2014)에 따르면 사이클 동호회는 1744개로 동호인 수는 2013년 59,000명에서 2014년 66,756명으로 증가하였고,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참여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이클 참여 관광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증가와 함께 동호인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때로는 안녕(well-being), 정신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행복, 생활만족, 사기(morale),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등의 많은 유사한 용어로서 표현되고 있다(Jiang & Hesser, 2006; Muldoon, Barger, Flory, Manuck, 1998; Sato, Jordan & Funk, 2014; Spiers & Walker, 2008). 국제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살며 관계를 갖고 있는 목표와 기대, 수준, 관심과 같은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 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6). 즉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자립, 사회적 관계와 그들 환경의 특이한 형체에 관한 관계와 같은 심리적 상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김광웅(1981)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물리적 삶의 질(PQOL: physical 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Milbrath(1978)은 삶의 질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공적 자극이라고 제안하였다. Meeberg(1993)는 삶의 질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감이라고 보았으며, 최준호(2001)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란 양적인 기준이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비교가 가능한 구성체인 반면, 주관적 삶의 질은 질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 객관적·상대적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몇몇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통합된 구성개념으로 이해하였다(김정호, 2006). 통합적 삶의 질에 대해서 임희섭(1996)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적 평가를 주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지각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Sato 와 Funk(2014)는 마라톤 대회 참여자의 참여 만족도와 심리적 몰입이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건희(2004)는 MTB 동호인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MTB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주며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협동심과 동료애를 유발하며 서로의 화합과 단결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Jiang 과 Hesser(2006)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적 장애, 노동에 대한 무능력, 무직생활, 낮은 수입, 운동부족, 흡연 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성별, 수입, 교육수준, 거주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Bayliss, Ellis 와 Steiner(2007)는 노인들의 자기 경영과 지각된 삶의 질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불건전한 생활, 신체활동부족, 건강상태에 대한 무지, 사회활동 부족, 재정적인 어려움, 남성노인이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이 낮다고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삶의 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행동요인변수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자전거 활성화(박근태, 2009; 문인수, 2012;), 공공자전거 이용(김병욱, 2010; 김민현, 2011; 이슬이, 2014), 자전거 도로 이용(문성철, 2012; 정창욱, 2013; 전우훈, 2016) 등 자전거의 기초적인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스포츠의 기능적 측면에서 참여자의 지각된 효익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스포츠를 매개로한 관광활동후 지각하는 효익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이클 참여를 매개로 여행활동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클 관광 세분시장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시장 촉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스포츠 참여관광이 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효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참여 스포츠관광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사이클 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동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 문제 및 가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관광의 영역인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자와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자료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사이클 동호회를 중심으로 사이클 참여를 목적으로 관광을 경험한 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있는 표본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문지를 통해 설명하였고, 설문조사는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설문의 응답방식은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으로서 총 332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설문지와 사이클 미참여자를 제외한 총 207명을 유효 표본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남성이 75.7%(n=157), 여성이 24.3%(n=50)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30세 ~ 39세 미만이 35.8%(n=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 49세 미만이 22.6%(n=47), 50세 ~ 59세 미만이 13.3%(n=28), 60세 이상이 2.7%(n=6)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 이상이 대학교 졸업이 85.5%(n=177)으로 대체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60.6%(n=125)가 기혼자로서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 ~ 200만원 미만이 15명(7.1%), 200만원 ~ 300만원 미만이 32명(15.5%), 300만원 ~ 400만원 미만이 39명(18.6%), 400만원 ~ 500만원 미만이 47명(22.6%), 500만원 이상이 74명(35.8%)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50.9%(n=1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 9.3%(n=19), 자영업 8.8%(n=18), 학생 8.4%(n=17), 기술직 8.0%(n=16), 판매/서비스업 4.9%(n=10), 주부 3.1%(n=6), 공무원 2.7%(n=5), 기타 5%(n=10)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변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구성변인별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과 삶의 질(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Table 1> 질문지 구성

구성변인	구성 항목	문항수	선행문헌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 월평균 소득	6	WHO(1996)
신체적 삶의 질	건강, 건강 유지, 숙면	3	
정신적 삶의 질	생동감, 슬럼프 극복, 긍정적인 사고, 성취감, 우울함 극복	5	

사회적 삶의 질	대인관계, 환경 적응, 가족관계, 사회활동	4	
환경적 삶의 질	경제적 부담, 환경적 여건, 사회적 지원, 자전거 인프라, 가족 및 친구의 지원, 위험부담	6	
합 계		24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질문척도의 신뢰도는 일관성에 관한 문제로서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만하게 측정하였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질문지의 신뢰도는 검사도구나 검사점수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검사도구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면 신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성태제, 2016). 동일한 개념을 여러 개의 복수문항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동일개념내의 문항간 내적 일관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다(성태제, 2016).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의 신뢰도 계수는 .775 ~ .848 로 나타났다. Nunnally(1978)는 0에서 1까지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일 때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인	요인	Cronbach's α
신체적 삶의 질	건강유지에 도움	.807
	건강이 좋아짐	
정신적 삶의 질	숙면에 도움	.848
	삶에 생동감	
	성취감	
	슬럼프 극복	
	우울함 경감	
사회적 삶의 질	긍정적인 사고	.775
	대인관계 개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적은 경제적 부담	
	사이클 여행 환경의 쾌적함	
	사이클 여행의 사회적 지원	
환경적 삶의 질	사이클 여행에 대한 가족의 지원	.813
	사이클 여행을 위한 안전한 환경	
	다른 여가활동 관심증가	

2.4.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질문지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특성에 대해서는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1>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신체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p
성별	남성	171	5.48	.94	.386	.535
	여성	55	5.57	1.01		

직업	공무원	6	5.06	1.32	.630	.788
	기술직	18	5.57	.89		
	기타	5	5.00	1.00		
	농수산직	3	5.44	.84		
	사무직	115	5.50	.89		
	자영업	20	5.70	.94		
	전문직	21	5.48	.95		
	전업주부	7	5.57	1.05		
	퇴직자	1	6.33			
	판매/서비스업	11	5.15	1.69		
	학생	19	5.65	.77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5.36	1.11	.456	.809
	대학 재학	20	5.63	.75		
	대학 졸업(학사)	154	5.54	.90		
	대학원 재학	3	5.33	.33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27	1.13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5.42	1.39		
결혼유무	미혼	89	5.38	1.03	2.398	.123
	기혼	137	5.58	.9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1.803	.11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5.42	1.0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5.21	1.0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5.40	.97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61	.79		
	500만원 이상	81	5.65	.98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2>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신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93, p=.047$). 즉, 월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보다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 사이클 참여 관광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5.35	.88	.920	.339
	여성	55	5.48	.89		
직업	공무원	6	4.63	1.44	.949	.489
	기술직	18	5.58	.87		
	기타	5	5.12	.61		
	농수산직	3	5.20	1.22		
	사무직	115	5.43	.83		
	자영업	20	5.54	.69		
	전문직	21	5.30	.99		
	전업주부	7	5.31	1.35		
	퇴직자	1	6.20			
	판매/서비스업	11	5.04	.97		
	학생	19	5.37	.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5.32	1.23	.470	.798
	대학 재학	20	5.37	.87		
	대학 졸업(학사)	154	5.40	.81		
	대학원 재학	3	6.07	.31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29	1.03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5.27	1.16		
결혼유무	미혼	89	5.28	.97	1.918	.167
	기혼	137	5.45	.82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2.293	.047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5.29	.8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5.06	.98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5.30	.9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56	.85		
	500만원 이상	81	5.50	.83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3>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사이클을 매개로 한 관광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향

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84, p=.017).

<Table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5.04	.91	.117	.733
	여성	55	5.09	.91		
직업	공무원	6	4.63	1.56	1.025	.423
	기술직	18	5.03	.91		
	기타	5	4.45	.48		
	농수산직	3	5.58	.38		
	사무직	115	5.12	.87		
	자영업	20	5.13	.67		
	전문직	21	5.15	.97		
	전업주부	7	5.04	1.17		
	퇴직자	1	5.50			
	판매/서비스업	11	4.50	1.13		
	학생	19	4.93	.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4.87	.99	.480	.791
	대학 재학	20	5.03	.90		
	대학 졸업(학사)	154	5.05	.84		
	대학원 재학	3	5.67	.14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5.18	1.11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4.97	1.31		
결혼유무	미혼	89	4.87	.93	5.784	.017
	기혼	137	5.17	.88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1.598	.16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4.63	1.0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4.95	.83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4.95	1.0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5.18	.91		
	500만원 이상	81	5.16	.86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삶의 질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 4>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지각된 환경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환경적 삶의 질

변수	구분	N	M	SD	F	ρ
성별	남성	171	4.71	.99	.521	.471
	여성	55	4.82	1.09		
직업	공무원	6	4.31	1.43	1.076	.382
	기술직	18	4.59	1.01		
	기타	5	4.17	.82		
	농수산직	3	5.39	1.06		
	사무직	115	4.81	1.04		
	자영업	20	4.84	.62		
	전문직	21	4.94	.92		
	전업주부	7	4.69	1.40		
	퇴직자	1	3.83			
	판매/서비스업	11	4.14	1.05		
	학생	19	4.67	1.0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4.72	1.03	1.611	.158
	대학 재학	20	4.76	.99		
	대학 졸업(학사)	154	4.69	.98		
	대학원 재학	3	6.28	.25		
	대학원 졸업(석사이상)	20	4.91	1.04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16	4.66	1.27		
결혼유무	미혼	89	4.59	1.04	3.124	.079
	기혼	137	4.83	.99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4.00		.664	.651
	100~200만원	16	4.46	.89		
	200~300만원	35	4.59	1.01		
	300~400만원	42	4.74	1.11		
	400~500만원	51	4.86	1.11		
	500만원 이상	81	4.78	.9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맞게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월평균 소득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직업, 학력, 결혼유무, 소득에 따라 사이클 참여 관광으로 지각하는 건강유지 및 개선 등에 대한 효익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삶의 질에 전체 평균 분석 결과 성별은 여성(M=5.57)과 남성(M=5.48)이 높은 점수로 신체적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직업은 퇴직자와 자영업이 가장 높은 점수로 신체적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퇴직자와 자영업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참여관광을 통한 신체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재학생이 평균 5.63으로 사이클 여행을 통해 신체적 효능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성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신체적 활동과 관광활동이 결합된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클 참여 관광참여로 인한 신체적 건강 증진에 따른 만족도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모든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이클 여행 참여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해짐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가의 사이클 장비구입과 시간적 여유가 요구되는 사이클을 통한 관광행동은 경제적, 시간적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다른 스포츠 여가활동이 지닌 신체적 효익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사이클 여행을 통해 신체적 효익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신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보다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 사이클 참여 관광활동을 통해 삶에 생동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여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F=2.293, p=.047$).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일수록 사이클 참여관광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우울한 감정의 해소를 더욱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최병열(2007)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는 심리적으로 근심·걱정의 완화, 공격성의 억제, 죄의식의 경감, 열등감의 해소 등의 효과를 지닌다. 이는 또한 참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감과 우호적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지식정보 중심의 현대문명사회에서 전문기술과 지식의 수준은 소득수준과 상관성을 지닌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직업적 특성상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소득 계층이 저소득 계층보다 참여스포츠 관광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동기 요인 중 정신적 효익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사이클 참여관광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클을 비롯한 참여스포츠 관광산업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전문직, 사무직 세분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참여스포츠 관광 마케터는 자본주의 문명사회가 안고 있는 정신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스포츠 관광이 지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 세분시장의 정신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참여동기와 욕구를 분석하여 이 세분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스포츠 관광의 세분시장으로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스포츠 관광의 동기요인을 추출하고 어떠한 동기요인이 실제 참여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사이클을 매개로 한 관광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784, p=.017$). 이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사이클 참여관광을 통해 대인관계와 환경적응력, 가족관계 등의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개선 및 지지효과를 지각했음을 의미한다. 최병열(2007)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고도 산업사회의 생활인에게 기분전환과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신선한 자극제로서의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한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을 익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질 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 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대한 심리적 기제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교육, 가계경제, 생활정보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이슈에 관한 정보취득 욕구와 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이다. 즉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보다 사회적 자본 축적에 대한 욕구와 사회관계적 동기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호회 등 타인과의 사이클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대인관계 증진 등 사회적 삶의 질의 향상을 지각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 참여관광 참여자들은 환경적 여건(공해, 소음, 기후, 교통체증), 사회적 지원(주민센터 라이딩 수업, 동사무소 공기주입기, AS센터 등), 환경적 위험 요소(교통, 도로상황 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익에 비해 환경적 삶의 질에 대한 효능감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클 참여인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적 인프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에 따라 참여자의 만족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 스포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 수 있는 제반 인프라의 구축과 참여 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인 중 사이클을 정기적으로 타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클 참여 관광을 경험한 대상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클 참여관광에 대한 인식이 적은 상태에서 설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클 참여관광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향후 조사대상이 개인이 아닌 동호회 등 사이클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대상을 상대로 양적, 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특성이 삶의 질에 측정변인은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이클 참여관광 시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와 동기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yliss, E. A., Ellis, J. L., & Steiner, J. F. (2007). Barriers to self-management and quality-of-life outcomes in seniors with multimorbidities. *The Annals of Family Medicine*, 5(5), 395-402.
- Cha, J. H., Chang, K. R., & Seo, W. J. (2018). Effects of SNS community use of outdoor sports participants on social capital and word-of-mouth.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3(2), 66-82.
- Choi, B. Y. (2008). *The effect of exercise addiction on an exercise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mong sport for all*

- group memb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isty. Asan. Korea.
- Choi, J. H. (2001).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f metropolitan and local self-governance system. *Joura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3(4), 133-150.
- Jang, W. Y., Lee, J. Y., & Won, D. Y. (2015). The market segmentation through purchasing decision factors of outdoor sports wear using conjoint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0(3). 117-130.
- Jeon, W. H. (2016). *Bileway driving safety analysis focusing on time headways and vehicle avoidance characteris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orea.
- Jiang, Y., & Hesser, J. E. (2006). Associations betwee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demographics and health risks. Results from Rhode Island's 2002 behavioral risk factor surve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3, 4-14.
- Jung, C. W. (2013). *Analysis on the factors of bikeway use with AHP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Yongin. Korea.
- Kim, K. W. (1981). Administrative cultur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9(2), 248-265.
- Kim, M. H. (2011). *Development of reallocation path calculating algorithm in public bicyc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Aerospace University.
- Kim, B. W. (2010). *Light weighted ECDH Algorithm for Security of Public Bike Rental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unnam. Korea.
- Kim, J. H. (2006).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stress and well-being: from the perspective of motivational states theory (M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2), 453-484.
- Lim, H. S. (1996). Symposium on quality of life: Where we are and what needs to be don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1), 5-18.
- Lee, K. H. (2004). *The study on function of leisure by particiapnts experience of the MTB club memb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isty. Seoul. Korea.
- Lee, S. Y. (2014). *Impacts of urban characteristics on the public bicycle 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Meeberg, G. A.(1993). Quality of lif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1), 32-38.
- Milbrath, L. W.(1978).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Indicators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Reports and Papers in the Social Sciences*, 38, 33-5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3). *2013 leisure white paper*. Sejong: Ministry of Cult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4). *2014 physical education white paper*. Sejong: Ministry of Cultur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5). *Survey on sport for all 2015*. Sejong: Ministry of Culture.
- Moon, S. C. (2012). *Green loess bicycle road composition and it's construction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 Moon, I. S. (2012). *Study on the improvement guidelines of bicycle poli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buk. Korea.
- Muldoon, M. F., Barger, S. D., Flory, J. D., & Manuck, S. B. (1998). What are quality of life measurements measuring?.

Education and debate, 316(14), 542-545.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Hill.

Oh, T. Y., Kwon, .K. S., Park, K. Y., & Seo, W. J. (2014). Effect of outdoor sports SNS use on perceived benefits, involvement and WOM Behavior.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8(3), 17-28.

Park, D. K., & Yi, E.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behavior of community sports participants and their community attachment. *Korean Urban Managemnet Association*. 20(2), 57-74.

Park, G, Y. (2013). *Promoting leisure sport tourism*.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ark, K. T. (2009).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to increase bicycle use*. Unpublished master thesis. Changwon Univeristy. Changwon. Korea.

Seong, Y. J. (2016). *Introduction to educational research*. Seoul: Hakjisa.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6).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2016 March*. (217).

Sato, M., Jordan, J. S., & Funk, D. C. (2014). The role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Leisure Sciences*, 36, 293-313.

Spiers, A., & Walker, G. J.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happiness, peacefulness, and quality of life. *Leisure Sciences*, 31(1), 84-99.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WHOQOL-BRE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 field trial version..*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